

# 한전 적자 영향...지역 상장사 1분기 실적 부진

### 한전 영업이익 -2조4113억, 순이익 -1조6496억 보해양조·서산·오이솔루션·파루 흑자 전환

한국전력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지난 1분기 광주·전남지역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적자가 지속됐다. 한전이 1분기동안 1조6496억원의 적자를 낸 때문이다. 한전을 제외하면 흑자 폭은 줄었지만, 지역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을 냈다. 특히 보해양조와 오이솔루션·파루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금호타이어·우리료·남화산업은 영업이익에서, 서산은 순이익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2019사업연도 1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6개사(우리금융(금융업), 대우플러스(합병), 세화아이엠씨(감사의견비적정)) 중 13개사의 매출액은 16조587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9%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3497억원,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커졌다.

이는 한전의 영업실적 부진이 원인이다. 한전의 매출액은 15조1176억원으로 13개사 전체 매출액(16조5879억원)의 91%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전이 영업이익 -2조4113억원, 당기순이익 -1조6496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적자 폭을 키웠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을 제외한 12사는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1조470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14%, 순이익은 18.37% 감소했다. 또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순이익률은 각각 4.20%, 3.38%를 기록해 매출액감소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감소해 전체적으로 이익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 측은 "한전을 제외하면 지역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 평균 이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익률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104.50%로 전년말 대비 6.78%포인트 증가해 전국 평

균(70.03%)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별로는 보해양조가 영업이익(5억7300만원)·순이익(8억3000만원) 모두 흑자전환했다. 금호타이어는 영업이익(36억1600만원)에서 흑자를 냈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적자를 지속했다.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 18개사 중 16개사의 매출액은 283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 -32억원, 순이익 -15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특히, 오이솔루션과 파루는 실적 개선으로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다. 오이솔루션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151% 신장되면서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100억원이상 흑자를 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9.59 (-5.27)
- ↓ 금리(국고채 3년) 1.65 (-0.02)
- ↓ 코스닥 696.89 (-10.04)
- ↓ 환율(USD) 1189.20 (-3.60)



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22일 이규성 칼라일그룹 공동대표와 대담하고 있다.

## “자동차,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간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대담서 강조

#### “모든 전략의 중심은 고객”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칼라일 그룹 초청 단독 대담에서 ‘고객 중심의 회귀’와 ‘고객 니즈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이규성 칼라일 그룹 공동대표와 대담에서 고객중심 가치, 미래 트렌드 대응, 리더십과 조직문화 혁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이 고객 및 자본시장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담 형식을 빌어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담은 정중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간 영어로 진행됐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고객’이라고 답했다.

그는 “요즘 고객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서비스·제품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집중하기 위해 더 노력할 여지가 없는지를 자문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차그룹 모든 직원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비즈니스를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오너로서 소유가 아닌 공유 경제로의 전환을 예상하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수석부회장은 자율주행, 전장화 등 미래차 혁신기술에 대한 선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차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PC처럼 재설정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한 엄격한 시험이 필요하다”며 “불확실성이 높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실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해의 유명 브랜드 시즌오프'를 앞둔 23일 DKNY 직원이 고객에게 여름 신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 오늘부터

### ‘해의 유명브랜드 시즌오프’

광주신세계가 24일부터 각 브랜드별 ‘해의 유명 브랜드 시즌오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DKNY, 바네사브루노, 클럽모나코 등 브랜드가 올 봄·여름 신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고 버버리는 다음 달 16일까지 30~50% 할인 판매하며 비동을 이어받는다.

페라가모 제품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다음 달 2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오는 6월6일부터는 산드로, 마쥬, 자딕 앤볼테르 등 상품을 20~30% 할인 판매한다.

‘해의 유명 브랜드 시즌오프’는 행사 기간 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기업 10곳 중 8곳 “채용 때 뽑을 인재 없었다”

### 사람인, 인사담당자 348명 조사 “채용 어려운 직급 사원” 40%

기업 10곳 중 8곳은 채용을 진행할 때 뽑고 싶은 인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이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8%는 “뽑고 싶은 인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응답자 가운데 중견기업이 93.6%로 가

장 많았고 중소기업(84.2%), 대기업(68.8%)이 뒤를 따랐다.

뽑고 싶은 인재가 없어 채용이 가장 어려운 직급은 사원급(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대리급’(26.4%), ‘과장급’(25.1%), ‘부장급 이상’(4.7%), ‘차장급’(3.7%)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59%는 뽑을 만한 인재가 없어 채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채용을 포기하며 대치한 방식으로는 ‘기존 인력에 업무를 추가 배분’(61.5%·복수 응답)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순환보직 실시 등 내부인력으로 대체

(23%),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체’(12.1%), ‘해당 업무 일시 중단’(10.3%) 등도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348곳) 중 61.8%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인력충원이 급해서’(69.3%·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21.9%), ‘기본은 할 것 같아서’(20%), ‘다른 지원자보다 나아서’(13%),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9.8%), ‘추천 받은 인재라서’(4.2%)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

채용 후 해당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 1년 3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8점으로 나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중기 69% “내년 최저임금 동결” 중기중앙회, 600개 기업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에 참여한 600개 중소기업 중 69.0%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62.6%('매우 높다' 26.8%·'다소 높다' 35.8%)에 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전 광주전남본부, 완도서 해월 배전철탑 교체작업

한전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는 5월 한 달 동안 완도군 노화도와 소안도 일대에서 해월 배전철탑에 대해 정밀점검과 노후설비 교체작업을 시행했다.

완도군 노화도와 소안도는 해태가공공장과 전북양식장이 밀집돼 있으며, 정전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돼 사전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전을 예방키 위해 해월 구간 배전철탑 절연장치(애자)와 전선 진동방지장치(댐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설비를 신속히 교체해 해당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나섰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전국 13% 면적

과 53%의 전국 최장 해안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서남해안과 남해안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월철탑 529기와 약 90km의 해저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 지역본부중 최다 특수설비를 관리하고 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매년 철탑과 해저케이블에 대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과 보수를 통해 평상시는 물론 자연재해와 재난 상황에서도 정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